

'5.1'連休의 연길, '중화민족 한가족' 분위기 물씬

전국 각지 관광객들 모셔다 연길의 민속문화와 풍토인정 선물

5월 1일 연길시 하남가두 백산사회구역, 북적이는 명절 분위기 속에서 석가장과 장춘에서 온 관광객들이 연변의 특색 음식을 맛보고 민속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휴가시간을 보냈다.

이번에 백산사회구역의 초청을 받은 관광객들은 연길시에서 조선족 전통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5.1절 당일 관광객들이 고속철에서 내리자마자 사회구역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마중해 사회구역으로 안내했다. 사회구역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사회구역에서 미리 준비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주민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로 어우러졌다. 상모춤의 화려한 리봉과 장고춤의 강렬한 리듬은 현장을 뜨겁게 달구며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 관광객들은 민속 체험구에서 직접 김밥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면서 조선족 전통의 음식문화를 체험했다.

"처음 해보는 김치 담그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장춘에서 온 한 관광객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남가두 자원봉사자들의 세심한 배려로 관광객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갔다.

전통문화 체험이 끝나고 관광객들은 백산사회구역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기지'를 방문해 사회구역 민족단결사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사진과 해설을



통해 여러 민족이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고향을 함께 건설하는 모습을 깊이 료해했다.

석가장에서 온 대(戴)씨 관광객은 방명록에 "조선족 문화를 처음 체험하면서 아이들은 다른 민족 풍습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적었다. 그의 소감은 관광객들의 공감을 대변했으며 이 같은 행사는 여러 민족간의 이해를 넓히고 단결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다. 대씨는 "조선족 전통 예술과 음식을 직접 체험하며 여러 민족 문화의 풍부함을 느끼고 민족간의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5월 2일, 연길시 북산가두 단청사

회구역에서도 구수한 노래가락이 울려퍼졌다.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진황도, 통화 등 지역에서 온 관광객 4가족이 손을 마주 잡고 춤을 추면서 특별한 연길 려정을 시작했다.

단청사회구역에서는 특별히 연변 커피문화 체험 코너를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연길 특색의 커피 제조 과정을 보여주면서 조선족 커피문화를 설명했다. 관광객들은 자신이 손수 내린 커피를 맛보며 다채로운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단청사회구역에서는 화려한 조선족 전통 복장을 많이 마련해 관광객들이 직접 골라입을 수 있게 했다. 관광객들은 사회구역 활동실을 무대로 모두가 하나 되어 노래

하고 춤을 추었다. 비록 동작은 서툴렀지만 열정만은 뜨거웠다. 춤사위에 휘날리는 색동 리봉 사이로 웃음소리와 선율이 어우러져 민족 화합의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했다.

흥겨운 분위기는 조선족 전통놀이 '웃놀이'로 이어졌다. 두명씩 팀을 묶어 말을 이동시키면서 처음엔 낯설어 하던 관광객들이 놀이를 통해 동맹을 맺었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은 연길에서 친구가 되어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연길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전통 음식 체험이었다. 단청사회구역에 마련된 '김치공방'에서 조선족 할머니들은 "고추가루는 골고루 뿌리고 액젓으로 감칠맛을 내야 뽀뽀더러 집안의 온정까지 한술가락 있어야 해요."라고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양념 배합 비법을 손수 가르쳤다. 푸른 배추잎에 붉은 양념이 층층이 발라지자 신맛과 매운 향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다른 편에서는 관광객들이 따뜻한 밥에 김가루, 참깨, 단무지를 넣어 주먹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맛있어요!"를 연발했다.

북산가두 단연, 단청, 단광, 단진 등 사회구역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연길에 오면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조선족 문화를 매개체로 관광객들을 위해 민속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정현관기자 /연길시당위 선전부

장백현조선족로인협회 록강분회 경로원 위문과 전통문화 행사로 호평



'5.1'連休 기간 장백조선족자치현 조선족로인협회 록강분회에서는 총협회의 배치에 따라 선후로 현조선족경로원과 장백천년에성풍경구를 방문, 여러 뜻깊은 문화오락활동을 조직했다.

5월 1일, 록강분회에서는 20여명의 회원들을 조직하여 현조선족경로원을 방문했다. 협회 회원들은 자비로 위문금을 모아 연세가 많고 고독하게 만년을 보내고 있는 로인들을 위문했으며 간단한 문예종목도 선물했다.

이날 오전 장백현 경내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고 날씨도 추웠지만 록강분회 회원들은 저마다 민족복장을 곱게 차려입고 경로원 2층 대청에서 문예종목을 선보였다.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남성소합창 〈첫 수확〉, 〈금강산타령〉, 조선족무용 〈금수강산 장백산〉 등 종목은 경로원 로인들과 장내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올해 94세 고령의 김보배할머니는 "록강분회 회원들이 얼마전에 이곳에 찾아와 물만두를 빚어주고 오

늘은 또 멋진 공연을 선물하니 실로 명절의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5월 3일 오전, 장백천년에성풍경구에서는 성대한 개성(开城)식이 열렸다.

록강분회에서는 총협회의 위탁을 받고 40여명 회원들을 조직하여 화려한 민족복장을 차려입고 악기를 연주하고 장단을 치며 춤을 추는 등 개성식 행사에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어 진행된 조선족 전통혼례식에서 회원들은 신랑, 신부의 량가 부모 역할로 등장하며 조선족의 민속 문화와 레의범절을 관중들에게 전시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조선족 배추김치 담그기, 찰떡치기 등 민족 특색 음식 만들기로 조선족 로인들의 향토한 정서품모를 보여주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이번 활동은 우리 민족의 전통민속문화를 발굴하고 우수한 민족례의를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최창남

로동절 최전선의 헌신, 도시의 안전과 따뜻함을 지켜내다

전력 제일선 사수, 안정적 공급 보장

명절 기간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5월 1일, 국가전력망 동료현전력회사의 당직일꾼 하유해와 리만봉은 이른아침부터 66키로볼트 변전소 장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적외선 온도계로 장비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명절 내내 주민들의 전기 사용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한편 전력조정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전력망 부하 변화를 주목하고 주요 변전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기중 전력공급소의 사업일꾼들은 배전 선로에 대한 특별 순찰에 나서 명절날 전력 공급을 보장했다.

'안전 도로' 수호, 경찰의 24시간 책임

'5.1'連休 기간 료원시의 교통경찰들은 '원활 확보, 안전 강화, 봉사 개선'을 목표로 주요 관광지와 상권 주변에 임시교통초소를 설치하고 군중들의 안전한 출행을 보장했다. 동시에 '통제 + 순찰' 방식으로 불법 주차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 체증을 현저하게 해소했다.

한편 시민 편의를 위해 차량관리소는 '명절 무휴무' 봉사를 실시하고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비롯해 여러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봉사도 제공했다.

사회구역 안전 수호, 기중 담당 실천

5월 3일 오후 1시, 장마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료원시 료산구 복진가두 사업일꾼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복진가두판사처 주임 장효의는 동

료들과 함께 옥규원상업거리를 찾아 소방시설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가두의 사업일꾼들 정말 대단해요. 명절 내내 사회구역에서 바쁘게 일하는군요. 청소부터 안전점검까지 주민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주민 량용이 감탄조로 말했다.

'5.1'連休를 앞두고 복진가두는 연인수로 89명 일꾼을 투입해 39개 아파트단지를 점검하고 73건의 문제를 해결했다. 동시에 670여개 점포와 양로시설들을 검사하고 17건의 문제를 처리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했다.

일터 고수하며 시민 건강 수호에 나선 의료진

"수술후 혈압이 안정적입니다. 출혈량을 주의하여 관찰하세요!"

5월 2일 오전 8시, 료원시중의원 부인과 병동에서 과주임 장인영은 환자의 회복 상태를 세심히 확인하고 있었다. 간호실 후판에 빼곡이 적힌 환자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보장했다.

심장내과 병동에서 의사 탕봉은 병실을 오가며 환자들의 상태를 분석했고 구강과에서는 의사 당소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있었다. '5.1'連休, 료원시중의원 문진대청은 비록 평소보다 한산했지만 등록, 수급 등 청구에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의료일꾼들은 각자 묵묵히 일터를 고수하고 있었다.

료원시의 이 모든 풍경은 평범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로동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일터를 굳건히 지키고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분투하는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 로동정신을 해석하며 료원시에 가장 아름다운 명절의 풍경을 그렸다.

훈춘, '폐기차' 정돈으로 도시 거주환경 개선

최근 훈춘시 여러 부문은 연합으로 도시구역 '폐기차'에 대한 특별정돈행동을 전개했다. 이번 특별정돈으로 훈춘시는 도시교통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하며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을 보장하여 시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제고했다.

이번 행동은 훈춘시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대대가 주도하고 훈춘시공안국 교통경찰대와 정화가두, 신안가두, 하남가두, 해동가두 및 훈춘융합매체중심에서 참여했다.

행동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훈춘시 각 부문은 련근련동을 강화하고 장기효과 관리통제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했다. 동시에 일상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차' 문제가 반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한편 관련 부문은 선전 인도를 강화하여 '폐기차' 정돈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지지도를 제고시키고 전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훌륭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번 행동에서 각 부문은 방문, 순찰 등 방식을 통해 도시내의 '폐기차'에 대해 일일이 조사했다. 공공주차공간을 장시간 점유한 '폐기차' 소유주에게 7일내에 차량을 처분하고 기한내에 스스로 이동하라고 통지했다.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아직 처분하지 않은 '폐기차'는 관련 부문에서 통일적으로 다른 곳에 이전시키고 소유주와 연락이 닿은 후에 추가 처리하게 된다.

이번 '폐기차' 특별정돈행동으로 도시의 도로 환경이 크게 최적화되고 주차 질서가 한층 더 규범화되었다. 훈춘시도시관리종합행정집법대대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는 관련 부문과 연합하여 순찰 강도를 높이고 '폐기차'에 대한 상시화 정돈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문명하고 규범적으로 주차하고 함께 건설, 관리하여 깨끗하고 질서있는 안전한 도시 주거환경을 공유할 것을 광범한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길림일보

行善是福

中华有福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天津大郑剪纸

中国宣传部 中国文明网